

'25. 5.16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 (NO. 452)

미 주

- 온두라스, 도심 총격 사건 우려 美경고에 경계 태세 강화
 - 5.8 언론은 온두라스 치안 당국이 대규모 총격 사건 우려 가능성을 제기한 駐온두라스 미국대사관의 경고 속에 도심 지역에서 경계 근무를 강화하는 등 시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도
- 美, ISIS에 암호화폐 송금한 남성에 징역 30년 선고
 - 5.9 언론은 미국 연방법원이 ISIS 여성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암호화폐를 송금한 30대 남성에게 테러 조직 지원 음모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30년 4개월을 선고하였다고 보도

유럽

- 英, 런던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테러 용의자 체포
 - 5.8 영국 경찰당국은 런던에 소재한 이스라엘 대사관을 목표로 테러 행위를 준비한 혐의로 이란인 5명을 체포했으며, 정확한 사건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테러 용의자들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및 심문을 하고 있다고 발표
- 英·캐나다 연구팀, Z세대·여성·극우성향 사람들이 허위정보에 취약
 - 5.8 언론은 영국 캠브리지大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大 과학자들이 약 6만6,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, Z세대·여성·저학력·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허위정보에 더 취약하다는 결과를 밝혔다고 보도
 - ※ 연구자들은 “잘못된 정보는 쏠 세계 사회 기능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, 대처를 위해 누가 허위정보 위협에 취약한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”하다고 부언
- 독일, '왕국 세워 자치독립' 극우단체 강제 해산
 - 5.13 독일 정부가 독립 왕국을 설립하고 자치한다며 연방공화국 체제를 부정하는 우익 극단주의 단체를 강제 해산하고, 자칭 쾨니히라이히도이칠란트 (KRD·독일왕국) 명칭 사용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재산을 몰수했다 보도

아 테

- 파키스탄, 경찰차 노린 자폭테러로 경찰관 2명 사망
 - 5.12 언론은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한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버 팍툼콰주에서 파키스탄 탈레반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경찰 차량 겨냥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, 경찰관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보도
- 인도-파키스탄, 美 중재로 극적 휴전했으나 갈등 불씨 여전
 - 5.12 언론은 인도-파키스탄이 미국의 중재로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양국 군사행동이 중단되었으나, 인도가 '테러 무관용 원칙'을 고수 중이며 인더스강 사용 등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하여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도

중 동

- 이스라엘, 테러리스트 1명 사살, 55명 체포
 - 5.9 언론은 IDF(이스라엘 방위군)가 이번 주 테러 대응 작전을 통해 테러리스트 1명을 사살하고 55명의 테러 용의자를 체포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,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
- 하마스, 종전 촉구하며 이스라엘 인질 2명 영상 공개
 - 5.11 언론은 하마스가 가자지구 전쟁 종료를 촉구하는 이스라엘 남성 인질 2명의 영상을 공개하였다 보도했으며, 인질 영상 공개가 인질 석방과 휴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스라엘을 압박하려는 심리전이라고 분석

아프리카

- 부르키나파소, 이슬람 지하드 단체 공격으로 100여명 사망
 - 5.13 언론은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북부에서 지난 11일부터 이슬람 지하드 단체 JNIM의 공격으로 1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, 사망자 대부분은 군인들이며 구호요원 한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
 - ※ 부르키나파소는 지난 '22년 일어난 2번의 쿠데타로 정부의 통치영역 밖의 지역이 절반 수준이며, 극렬한 극단주의 무장단체에 의한 무장공격이 수시로 발생 중

중국, 신장 우루무치市 차량 돌진·폭탄 테러

- '14.5.22 신장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市 인민공원 인근 시장에서 연쇄폭발 테러로 43명 사망, 94명 부상
 - 테러범들은 SUV 차량 2대에 분승, 시장으로 고속 돌진 후 차량 내에서 폭발물을 무차별적으로 투척
 - 현지 언론은 '아침식사를 하고 장을 보기 위해 시민들이 몰리는 시간대에 테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늘었다'고 보도
 - 중국 공안은 漢族이 주로 이용하는 시장을 공격한 점에서 위구르족을 배후로 지목하였으며, 이번 사건을 '심각한 폭력 테러'로 규정
 - 특히 同 테러는 우루무치驛 테러*(14.4.30) 이후 경계태세가 최고조인 시기에 발생, 당시 중국 대테러 능력의 허점이 노출된 것으로 평가
 - * 「시진핑」 주석의 우루무치 방문 직후 자살폭탄 공격 발생(사망 3명, 부상 79명)
- ⇒ 다중밀집지역의 차량돌진 및 폭발물 투척 등 소프트 타킷 대상 테러 공격 예방을 위한 다층적이고 선제적인 보안조치 필요

< 신장위구르 자치구 >

- 중국 영토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, 원유·석탄 등 지하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·몽골·카자흐스탄·아프간·인도·파키스탄 등 8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경제·군사적 요충지
 
 - * 중국 석유 매장량의 30% 보유, 중앙아시아 수입 천연가스관 매설 지역
- 인구 2,300만명 중 약 45%인 1천만 명이 이슬람교도인 위구르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중국의 강압적 통치와 한족 이주자들의 경제적 이권 독점으로 인한 차별 등으로 저항과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무력투쟁이 지속
- 위구르족은 종교적·문화적 정체성 보존, 독립국가 건설을 주장해왔으나, 중국 정부는 이를 분리주의·테러리즘·극단주의로 간주하였으며, 일부 위구르계 청년들이 투르키스탄 이슬람당(TIP)와 같은 국제 지하드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시리아, 파키스탄, 아프간 등지에서 훈련 후 귀국해 테러 수행 사례가 보고된 바 있음.